

美國 FMRC와 상호기술협정 체결



우리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29일 소방설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증기관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와 상호 기술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술협정의 주요 내용은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기술연수협력 등으로 앞으로 양기관은 시험결과와 상호인정 등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FMRC는 미국의 PMI(Protection Mutual Insurance)를 비롯한 3개 대형 손해보험회사가 지난 1935년에 설립, 운영하고 있는 FMS(Factory Mutual System)내의 조직으로 소방기기·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기구 등에 대해 FM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해 5월 영국의 로이드선급협회의 인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이번의 기술협정체결로 연구소의 국제화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이번 기술협정을 상호 인증협정으로 발전시켜 국가간 중복시험검사와 독자적인 기준적용 등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생산업체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KOLAS 공인시험· 검사기관 인정업무 추진

우리 연구소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공인 및 상호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내에 설치된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KOLAS)로부터 시험·검사업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해 8월 초에 전담팀을 결성하였고 전직원이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KOLAS의 설립배경은 ISO/IEC 지침서 25와 38(교정 및 시험·검사기관의 능력 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통일·향상시켜 공인시험·검사기관간에는 국내·외적으로 상호 인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준비 작업은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시서 등의 문서작성과 표준물질, 표준기구 등의 시설확보로 대별된다.

KOLAS 인정관련 직무교육 실시

우리 연구소는 지난 1월 21일 연구소내 강당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박기주 시험부장을 초빙하여 KOLAS 인정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KOLAS 인정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된 이번교육에서 박기주 부장은 이미 KOLAS 인정을 획득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사례를 들어가며, 시험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시험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시스템 운용, 표준시료 확보, 소급성의 의미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전반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교육 후 박부장은 KOLAS 인정추

진 전담팀과 가진 간담회에서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시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고 KOLAS 인정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토의하였다.

해운항만청을 통해 IMO에 시험기관 등재

우리 연구소가 IMO(국제해사기구)에 시험기관으로 등재되었다. IMO 기준에 따라 격벽, 갑판 등 선박용품의 내화시험에 대해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LR)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연구소는 IMO 방화소위원회 제38차 회의결과에 따라 IMO에 시험기관으로 등재하고자 신청공문과 관련자료를 해운항만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운항만청도 지난해 12월 29일자로 IMO 사무국에 요청공문을 발송, 등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 건재시험센터와 제4차 정기협의회 개최



우리 연구소는 지난해 11/28~12/1까지 4일 동안 일본 건재시험센터와 제4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기관은 기술협정을 체결한 1991년 이후 매년 장소를 번갈아 협의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

소에서 갖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간의 내화성능 시험 상호 인정 및 시험규격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ISO 규격에 의해 양 기관에서 실시한 가열로 Calibration 시험자료의 해석 및 의견교환을 주요 의제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방내화 시험의 국제적 동향, 일본의 방내화 평가기술의 개발추이, 한국의 방내화시험 방법의 동향 등 상호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일본 건재시험센터의 이번 협의회 참가자는 小柴惠(부소장), 北島勝行(방내화시험과 과장), 黒嶋寛光(방내화시험과 대리)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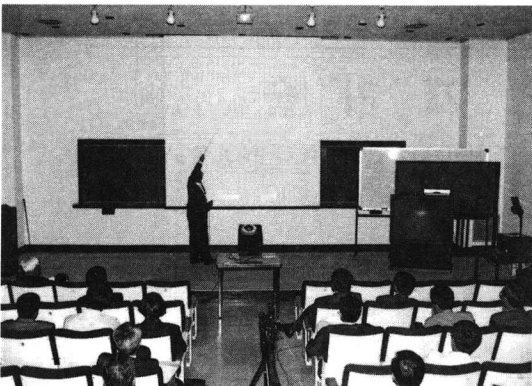
음향 및 건재환경 시험동 준공식



우리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9일, 정왕선 이사장과 조규만 소장, 정해봉 상무, 정대춘 상무, 그리고 연구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향 및 건재환경시험동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5개월여만에 완공된 음향시험동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339㎡이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로서 시험체카트리지, 공기튜브차폐시스템,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계측장비 등을 갖추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시설이고, 동 기간에 신축된 건재환경시험동은 지상 1층, 292㎡ 규모의 철골구조 건물로서 건축부재의 환경시험 및 IMO와 관련된 시험체를 제작하는 데 이용될 예정이다.

건축업계로부터 방내화시험외에 환경시험도 수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아온 연구소는 벽체 및 바닥용 건축구조부재의 차음성능 및 재료의 흡음을 측정할 수 있는 음향시험동 준공에 이어, 앞으로 열관류율 시험장치 등 열에 대한 환경시험 시설도 갖출 계획으로 있다.

FM200 소화약제 설명회 지원



미국 Great lakes사가 개발한 FM200 소화약제 설명회(주최 : 한국화론(주))가 지난해 10월 17일 우리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연구소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는 약제설명, 약제효과시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인원은 SKC, 삼성전자의 방화관리자 등 국내의 방화관계자 약 70명이었다.

통신구화재 관련시험 및 음향시험업무 활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통신구 케이블 화재를 계기로 우리 연구소가 수행하게 된 통신구 화재 관련 시험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케이블 화재 예방대책중 가장 중요한 케이블

의 난연성을 측정하는 시험을 IEEE, IEC, UL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굴곡특성, 내열특성, 팽창시험 등 여러관련 시험이 전국 각 전화국으로부터 접수되어 현재까지 시험 500여건, 연구 1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준공되어 12월부터 시작한 차음성능시험업무도 건축구조부재 생산업체의 시험의뢰 쇄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월 현재 시험실적누계가 35건에 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더 좋은 환경에서의 삶 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공업화 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이 보완되어 주택의 구조안전성, 거주성, 내구성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음환경, 열환경 등 거주성은 실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관련 시험수요가 급증, 적체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에서 건축구조부재의 차음, 흡음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까지 4군데 뿐이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시험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체 카트리지 및 공기튜브 차폐방식 등 시험이 용이한 최적의 시험시설을 확보하여 신속·정확하게 시험을 수행, 음향환경분야의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고 있다.

연구소는 차음성능시험을 KS뿐만아니라 국제 기준인 ISO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대상 품목으로는 건축자재(천정재, 바닥판, 방음벽), 건축설비(공조설비, duct), 가전기기류(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이 있다.

국제화재(주) 신입사원 견학

국제화재해상보험(주) 신입사원 37명은 지난 1월 26일 우리 연구소를 방문, 연구소 안내 슬라이드를 시청하고 각 시험연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소화기 시험 실습을 직접 실시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FLM**